

나주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 '청신호'

운병대 시장,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간담회... "시민 염원 이뤄낸다" 산 정상 개방 관련 공식 안전 제안 ... 軍 "시와 상생 방안 마련할 것"

나주시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을 12만 나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관·군 간 논의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운병대 시장은 최근 시청사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달 이뤄진 공군 방공포대 이전에 따른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공식 요청했다.

운병대 시장은 이 자리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의 오랜 염원을 전달하며 2개 방안을 군에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산 정상 공군부대 완전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를 금성산 등산로 개설, 관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산 정상 공군부대가 그



대로 주둔할 경우 부대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공간, 주변 부지를 나주시와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는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 시장은 제안 설명과 더불어 산 정상부 지뢰 제거 현황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산무기체계 도입 관련, 타 지자체 개방 사례 및 관·군 간 협력 사항 등에 대한 관·군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운 시장은 "나주시민들에게 금성산은 단순 산이 아닌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호신, 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라며 "과거 안보 논리에 국한하기 보다는 이제는 시민들과의 상생을 가치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관계자는 "나주시민들의 산 정상 개방에 대한 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군에서도 접점을 찾아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은 안보와 더불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 정상 상시개방과 관련된 나주시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협의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식 제안한 금성산 정상 상시 개방 추진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의지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나주=조성준 기자

윤영규 곡성군의회장,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의정혁신대상' 수상 영예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이 '2022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미디어기자협회, 선데이뉴스신문, 월간 선데이뉴스 주최·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인물을 선정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윤영규 의장은 군민들의 목소리



를 조금 더 가까이 듣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윤영규 의장은 "군민이 주신 고귀한 임무를 맡아 충실히 의정활동을 한 것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곡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곡성=황성연 기자

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37명 추가 입국

필리핀 리잘시과 MOU 협약...연말까지 총 88명

진도군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7명이 추가로 초청·입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진도군과 필리핀 라구나주 리잘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으며, 이달 초 필리핀 계절근로자 3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진도군에는 이번 37명에 이어 연말까지 20명이 추가로 입국해 모두 88명이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어촌 경영 안정과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무안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 등 14건 안건 처리

무안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8일간 운영된 제284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배 의원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기정예산 대비 41.7억원(5.45%)이 증액된 8,088억원 규모의 2022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경현 의장은 "올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동료 의원과 무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군민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열린 의정, 책임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안=박대연 기자

광양,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성료

교육생 만족도 최고...100% 재참여 의사 밝혀

광양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한 총 10회의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교육은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잔가지 파쇄기 운전 실습과 예취기, 기계톱 정비 실습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을 편성해 실시했다. 특히, 농업기계 사용 시 주의사항(안전 보호구 착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진행했다.

시가 2019년부터 실시하는 현장 실무교육은 올해 136명을 포함한 총 438명이 교육에 참여해 매년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후 가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95%가 만족했고, 모두 향후 교육에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동중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운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렵다. 실습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에는 교육 기층을 늘려 더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3~11월 마을을 방문해 순회수리를 실시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조성준 기자

순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순천시는 20일부터 2023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과 인원은 관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6학년 40명(청소년수련관, 중학교 1~2학년 40명(청소년문화의집)이다. 20일부터 30일까지 QR코드를 통해 1차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2차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최종 선발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한다. 순천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직접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

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봉사활동, 성취포상제, 공모전, 드론대회, 지역사회축제 부스운영 등에 참여해 전라남도지사 상 등을 수상했다.

내년에는 영어·수학 등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뉴스포즈·연극·코딩, 드론·음악·미술 등 & 문화 등 전문 체험을 운영하며, 주말체험으로 예술·문화공연, 진로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조성준 기자

순천 '동아시아문화도시 온라인 라이브 페인팅' 사업 성료

순천시·日 기타큐슈시·中 양저우시 학생 159명 참여

순천시는 지난 15일~16일 이틀간 순천 용당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온라인 라이브 페인팅 사업'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순천시, 일본 기타큐슈시, 중국 양저우시와 공동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중일 아이들의 수업환경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간 지속적 교류와 화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천 용당초등학교, 기타큐슈 후지

키초등학교, 양저우 문화초등학교 3곳의 학교에서 총 159명의 학생이 참여해, '철새가 국경 없이 왕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경을 초월해 소통하자'를 주제로 세 도시 합작 철새그리기, 퀴즈, 도시 및 학교 소개 영상 시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합작 철새그리기 프로그램은 일본 라이브 페인팅 전문가인 '구로다 세이타로' 작가가 주재했다. 1일 차에는 새의 윤곽선 그리기, 2일 차에는 다른 나라 어린이가 그린 새 그림

을 채색하는 작업을 진행해, 하나의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외,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도시·학교 소개영상 시청 및 퀴즈를 맞히는 시간을 통해 서로 닮은 듯 다른 한중일의 학생들의 일상의 모습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순천 용당초등학교 학생은 "일본·중국 친구들과 온라인 소통이었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는 기분이었다"며,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순천=조성준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참석 '성료'

갯벌-생물권보전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신안군 실천행동 소개

지난 10~12일 캐나다 몬트리올 컨벤션 센터 블루존에서 개최된 '제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가, 폐회식을 끝으로 2박3일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Region 4, 퀘벡주와 몬트리올시가 공동 주최하며 중국 운남성과 쿤밍시가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생물다양성 실천'을 주제로 △지역차원의 생물다양성 행동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 및 수단(영향 세션) △GBF 이행을 위한 지

방정부의 청년, 산업, 과학, 재정 간 협력 촉진 방안(참여 세션) △GBF 이행을 위한 혁신적 변화, 생물다양성 행동 강화 이니셔티브, 지방정부의 노력(행동 세션)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생물권보전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신안군의 실천 행동 등을 소개했다.

철새와의 공존을 위해 중간기착지 섬의 동식물 및 환경보호, 동식물 관련 DB구축, 주민대상 생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린카본, 블루카본,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으로 0.5도를 낮추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스트 아서 가나 케이프코스트 시장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중앙정부의 다층적인 협업과 청년과 취약 계층의 참여 및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브라질, 가나, 중국 등의 각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캐나다를 찾은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통해 GBF실현에 있어 지방정부의 강력한 역할과 기여를 추종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신안=박대연 기자

해남, 43개 마을에 '문화의 꽃' 활짝 피었다

1000여명 주민 직접 참여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성황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이 주민 주도 마을 문화예술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공모 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남, 마을에 文化를 피우다'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마을주민 999명과 102명의 예술강사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마을 문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구성해 우리 마을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특징이 있다.

마을의 이야기와 설화를 담은 연극, 영화를 제작하고 동화책 만들기, 마을 시집, 마을 역사책 등 정성들인 마을 책자를 만든 마을도 있다.

뉴트로 패션쇼를 개최하는가 하면 마을 합창단과 어르신 밴드를 결성

장흥 용산면 포곡마을서 '송기숙 선생 기념제' 개최

'송기숙 선생 기념제' 개최

송기숙 선생 기념제가 19일 장흥군 용산면 포곡마을에서 열렸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장흥문화회공작소와 (사)송기숙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기념제는 지난 달 열린 전남도 청소년 송기숙 백일장 및 송기숙 문학강연회와 함께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됐다.

용산면 포곡마을은 송기숙 선생이 학창 시절을 보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군 문화인과 송기숙 선생의 유년시절을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고 송기숙 선생은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해 구급·해직된 바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수습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다.

문학적으로는 백의민족, 압태도, 녹두장군, 오월의 미소 등 현대사의 걸작을 다룬 굵직한 작품 발표했다.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금호예술상 등을 수상한 그는 2021년 12월 5일 별세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광양 진월면, 동절기 맞아 34개소 경로당 안전 점검

34개소 경로당 안전 점검

광양시 진월면은 동절기를 맞아 지난 7~15일 34개소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안전 점검표를 의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월면은 경로당 전체를 방문해 동절기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 사전 점검과 2023년도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병행했으며 난방시설 상태, 정상 가동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꼼꼼히 살피고, 경로당에 환경 개선할 곳이 있는지 물품 지원이 필요한지 등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심현우 진월면장은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언제든 애로사항이 있으면 면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고, 어르신들은 "면장님이 자주 방문해 안부까지 살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심현우 진월면장은 "매일 경로당 현장정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 결과 난방기기는 모두 정상 작동했으며 소화기가 없는 두 곳은 비치하도록 조치했고, 옥상 방수공사 등 환경 개선사업 7건은 물론 TV, 청소기 등 물품 요청도 16건이나 접수돼 내년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